

# 수요자 맞춤 지역개발·사회 공헌으로 '행복 전남' 견인

## 전남개발공사

올해 창사 18주년을 맞이한 전남개발공사가 수요자 맞춤형 지역개발사업과 안정적인 경영지표, 지역사회 공헌을 바탕으로 전남도민의 든든한 벗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전남개발공사는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경영 지표를 뚜렷하게 개선하면서 우량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국가적 과제에 발맞춰 풍력·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앞장서면서 지역의 미래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민선 7기 뚜렷한 경영지표 개선 = 27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전남도 유일의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의 경영지표는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향상되고 있다. 2018년 당시만 해도 높은 부채비율과 열악한 사업조건 등의 이유로 경영평가 하위 등급은 물론 지속적인 흑자 기조유지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정치인 출신 김철신 사장 취임 이후 불요불급한 관광사업장 매각, 조직슬림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개발 및 분양전략의 고도화를 통한 사업수익 개선 등 자구노력에 힘썼다. 그 결과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수익성 지표가 뚜렷하게 향상됐다.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142억원, 2019년 337억원, 2020년에는 559억원으로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기업 재정 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2018년말 5173억원으로 94%에 달하였으나, 2020년말에는 882억원이 감소된 4351억원 66.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스마일 전남, 스마트 전남개발공사'라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며 사업과 조직 운영 방향을 정비했다. 수익성과 개발 위주의 사업방향을 전남도민과 지역 공동체 이익 중심으로 무게를 옮겼다. 전남도의 새천년 비전인 전남 블루 이코노미 선도, 도민이 바라는 지역균형개발, 스마트한 조직문화, 도민이 행복한 사회적 가치라는 4대 전략방향과 세부 과제를 도출하여 명확한 목표 설정과 전략실행력을 높였다.

풍력 등 전남의 비교 우위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과 전남도 블루 에너지 정책에 부응해 지역산업기반 확충과 지역상생 일자리사업에도 앞장섰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뭄아 2019년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 그리고 2020년에는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역개발사업·도민 주거복지 실현 앞장 = 주력사업인 지역개발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나 산업단지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중소형 규모로 개발 방향의 무게가 옮겨졌다. 기존 사업은 차질 없는 공정진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발사업은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별 현안사항과 연계 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 1



전남개발공사 전경.

### 경영지표 개선, 2020년 당기순익 559억 창사 이래 최고 실적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여수 죽림지구 등 주거·지역개발 순항 태양광 '도민 발전소'·풍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앞장

단계 구간인 73만9000㎡가 준공됐다. 현재 3000세대가 입주해 도정이전 신도시로서 면모를 갖췄다. 잔여단계 또한 공동주택부지 10개 블록, 주상복합 5개 블록이 모두 분양이 완료돼 5800세대 아파트 분양을 진행 중이다. 최근 분양 완료된 오룡 2단계 대우 푸르지오 파르세나는 최고 68.15대1, 평균 15.08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명품신도시 오룡지구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례로 평가된다. 오룡지구는 2024년 준공목표로 잔여 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 소라면에 진행 중인 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 또한 친환경·자족도시로 조성 중이다.

지난해 5월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25% 공정을 보인다. 지난해 공동주택 전체 6개 블록 중 4개 블록이 우선 분양완료됐고 나머지 2개 블록 또한 연내 분양 예정이다.

◇풍부한 자원활용 신재생에너지 역량 집중 = 전남개발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역량을 모으고 있다.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평가받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로 공사의 안정적인 견장

한 경영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국가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행보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도민발전소를 건립 중이다. 구례 섬진강어류생태관 유류부지에 500kW 규모의 제1호 도민발전소를 설치, 2020년 12월 상업운전을 개시했고, 나주 소재의 옛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 부지에 제2호 도민발전소를 설치하려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치한 도민발전소는 발전수익의 50%를 전남도 인재육성기금에 기탁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영광·신안 해상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 국가해상풍력 단지개발사업'은 지난 7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본격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 수행역량 제고를 위해 영광 약수에 4.3MW 규모의 전남도 최초 해상풍력 시범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인허가를 완료하고 상업운전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개발 위주 사업구조 탈피·조직 슬림화 추진 시설공사 계약 공공기관 최초 기부실적 반영

###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지난해 9월 연임에 성공해 지난 2018년 9월부터 햇수로 5년째 전남개발공사를 이끄는 김철신(64) 사장은 정치인 출신이다. 순천 출신으로 전남 동부권에 정치적 기반을 둔 그는 전남도의회 의장을 지내며 정치력을 인정받아오다 민선 7기 들어 전남도의 유일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 수장 자리에 올랐다.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취임 초기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지난 4년간 성과로 실력을 입증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항상 공기업의 근본을 잃지 않고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사 임직원 모두가 노력해온 결과"라며 "도민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임 기간 경영지표 개선 등 성과가 뚜렷하다.

▲항상 공기업의 근본을 잃지 않고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도민의 동반자가 되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왔다. 취임 소감에서 밝혔듯이 지난 4년간 개발사업 위주 사업구조 탈피, 조직 슬림화 추진 등 대대적인 체질개선에 나섰다.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 559억원으로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을 거뒀다. 또한, 2004년 창립 이래 최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 등 여러 방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성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과 공사 임직원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도민과의 소통 노력은.

▲대외적으로는 주민참여 경영기반을 확대하고자 2019년부터 22개 시·군 대상 대규모 주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업무보고개최, 내부평가 심사위원 위촉, 사업현장 시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결과로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도시개발공사군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외성과는 전남개발공사의 수평적인 소통 문화가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

-전남도 유일 공기업으로 도민 기대치가 높은 데.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데 임직원이 앞장서고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사내 봉사단체인 '나눔이 봉사단'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지역 내 복지시설 위문활동, 아동보육시설 환경개선, 수해지역 복구활동 등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서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20년에는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에 적극 동참하고자 전남인재육성기금 50억원을 기탁하여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도 했다. 또한 지리적 여건이 열악해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독서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힘썼다. 2019년부터 전자도서관(J-Book)을 운



영 중이며, 신안지역 19개 초등학교, 727명이 이용하고 있다.

-사업 경영 측면에서의 사회공헌이 있다면.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기업에 가산점을 주고, 사회 소외계층의 기부실적을 우대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계약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 2018년부터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했고, 2019년에는 수익계약 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 보유업체를 우대하는 계약방식을 적용했다. 30억원이상 300여미만 시설공사 계약에도 공공기관 최초로 기부실적을 적격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20억원의 전남행복동행펀드를 조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영업과 매출에 지장을 받는 소상공인까지도 추가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내 82개 기업에게 20억원 전액을 대출 완료했다.

-끝으로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4년간 도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전남개발공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달려왔다. 이를 위해 소통경영, 조직혁신, 사업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 남은 임기동안 공사 백년대계를 위해 가진 것은 나누고, 부족한 것은 채움으로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행복전남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겠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